

다시 해외여행, 세부편

글. 양현우 BBS 불교방송 사원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열리지 않을 것 같은 하늘길이 열리고, 주변에서도 속속들이 해외여행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결정적으로 귀국 후 자가 격리가 폐지되어 휴가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이번 여름휴가는 해외여행으로 세부를 선택했다.

엔데믹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시기라 가기 전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했다. 백신 접종을 몇 차까지 했는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르다. 여행 준비 당시 필리핀의 경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신속항원검사 영문 음성확인서(24시간 이내)', 'One Health PASS(음성확인서 발급 후 등록)', '영문 백신 접종확인서'가 필요했다.

영문 음성확인서는 가까운 의원을 이용하면 되는데, 병원마다 비용이 큰 차이가 있어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영문 백신 접종확인서, One Health PASS(72시간 이내)로 서류에서 2차 접종과 차이가 있다. One Health PASS는 필리핀의 전자검역



필리핀 입국 시에는 영문 백신 접종확인서
(혹은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와
One Health PASS에서 발급한 QR 코드가 필요하다

신고서이다. 여행 전에는 필수로 모바일이나 PC에 접속 후 개인정보를 등록해서, QR 코드나 바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계속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어 여행하는 시기에 국가별 여행 기준을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여행지에 가면 가장 기대되는 것이 먹거리인데, 여행 전, 인터넷에서 검색한 코로나 이전에 올라온 게시물 정보 중 많은 식당이 폐업해서 당황스러웠다. 검색할 때, 최근 게시물을 확인해서 음식점을 방문하기를 추천한다. 그런데도 필리핀은 점차 규제가 풀릴 것을 대비해서 독자적인 관광 경로와 다양한 액티비티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유지하며 관광객 맛을 채비를 했다. 이 중 이번 여행에서 경험한 몇 가지를 소개한다.

2022. 11 **117**

이고, 집라인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엔 시작지점까지 산속을 30분 정도 걸어가야 한다.) 투어 중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중간중간 다이빙 포인트에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다이빙 포인트의 높이는 협곡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높아지는데 초반 1~2m의 높이의 다이빙 코스로 답력을 높여가면서 마지막 10m 높이의 다이빙 코스에 도전할 수 있다. (높은 곳을 무서워한다면, 다이빙은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협곡이 가파르고 계곡물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방수케이스가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중간중간 사진을 찍기 쉽지 않으므로 가능하다면 액티비티에 적합한 액션캠을 준비해두는 것도 좋다. 만약 없다면, 투어 업체를 고를 때 액션캠 대여를 해주는 곳을 찾으면 포토스팟에서 가이드가 수시로 촬영을 해주기 때문에 온전히 투어를 즐길 수 있고, 사진 촬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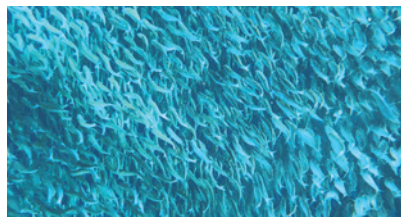
캐너닝 투어 협곡을 내려오는데 대략 3~4시간이 소요되므로 주로 20~30대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편이고, 긴 협곡으로 되어있어서 고소공포증, 물 공포증이 있거나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소인, 혹은 노약자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 아동의 경우 투어를 주관하는 업체마다 나이 제한에 1~2살 차이가 있으므로 예약 전 확인이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세부 시티에서 투어하는 지역까지 장거리이기도 하고, 투어 종료 후 저녁 시간이면 세부 시티까지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히기 때문에 숙소에 도착하면 거의 저녁이 되어 있으므로 하루를 온전히 비워두고 여행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



모알보알 투어 주요 스노클링

보통 가와산 캐너닝 투어와 하루에 같이 진행한다. 캐너닝은 오후에 진행하고, 모알보알 스노클링은 오전에 진행한다. 보통의 투어와 같이 새벽 4시부터 일정을 시작한다. 이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피곤할 수 있겠지만, 깨끗하고 맑은 바다로 들어가서 스노클링을 즐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졸음이 달아난다.

세부 모알보알은 다이빙 스팟으로 유명한 곳으로 여러 스노클링 포인트들이 있다. 투어에서는 페스카도르섬과 정어리 떼, 거북이 포인트 이렇게 3곳을 진행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페스카도르섬에서 스노클링을 진행했다. 간혹 파도가 높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섬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럴 때는 다른 곳으로 대체해서 스노클링을 한다고 한다. 섬 근처에 산호가 많고, 물고기를 많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정어리 떼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날씨는 좋았지만,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높아 중간에 포인트를 한 번 더 이동했다. 이동한 포인트에서 수천, 수만 마리의 정어리 떼가 여러 형태로 몰려다니며 장관을 이루며, 깊은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정어리 떼를 보러 갔을 때 작은 해파리에 여러 번 쏘여서 모알보알 스노클링 투어를 갈 때는 긴 팔, 긴바지의 레쉬가드를 입는 것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바다거북이를 볼 수 있는 포인트로 이동했다. 다른 투어 후기에서는 큰 성인만 한 바다거북이를 봤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필자가 간 날에는 작은 거북이 한 마리를 봤다. 깊은 바다에서 숨을 쉬러 올라온 거북이와 유유자적하게 바다를 헤엄치다가 보니 어느새 투어가 끝이 났다.

오슬롭 고래상어 투어

세부 오슬롭은 막탄섬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한적한 어촌 마을로 세계멸종위기 보호종으로 알려진 고래상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몸통 길이 12~18m, 몸무게 15~20t에 달하는 거대한 몸집과는 달리 주로 플랑크톤, 오징어, 작은 물고기 등을 주식으로 하고 매우 온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오슬롭에 있는 어부들이 고래상어에게 새우를 먹이로 주었는데, 그 후로 매일 아침마다 고래상어가 출몰하면서 투어가 시작됐다고 한다. 현재 이 투어는 정부에서 주관 및 관리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래상어를 보호하기 위한 필리핀 지침에 따라 투어는 최대 30분으로 제한되고 오전 7~12시까지만 가능하며, 배를 타고 5분 정도 바다로 나가 스노클링으로 진행이 된다. 스노클링을 못한다면 배 위에서 고래상어를 보는 것도 가능하다. 배를 몰거나 먹이를 주는 사람들은 업체의 가이드가 아닌 정부 가이드들인데 이들도 관광객을 위해 물에 들어와서 직접 멋진 구도로 사진 촬영도 해준다.

고래상어를 처음 봤을 때는 큰 몸집에 물에 들어갈 엄두도 나지 않았지만, 막상 물에 들어가서 보니 큰 몸집에 비해 온순해 보였다. 여러 번 몸이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 느낌을 받아서 더 재미있게 투어를 즐길 수 있었다. 한배를 탄 다른 나라의 아이들도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나중에는 신나게 투어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가와산 캐녀닝 투어와 마찬가지로 세부시티에서 고래상어를 볼 수 있는 오슬롭까지 2시간 이상 소요되고 투어의 특성상 소요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근처 투말록 폭포나 오슬롭 성당 투어와 묶어서 진행되는 패키지가 많다.

투말록 폭포

캐녀닝, 모알보알 스노클링 등 다이내믹한 액티비티를 즐긴 후, 다음은 비교적 여유를 갖고 즐길 수 있는 투말록 폭포를 방문했다. 필리핀에서 꼽은 세계 3대 폭포 중 한 곳으로 영화 '아바타' 배경의 모티브로 유명하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폭포의 모습을 감상하고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가와산 협곡과 마찬가지로 이 폭포의 빛깔도 신비로운 옥색을 띠는데, 이는 세부에 물에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날이 좋은 날에는 폭포에 아주 큰 무지개를 볼 수도 있다고 한다. 우리가 간 날에는 날씨가 흐리고 살짝 비가 와서 무지개를 보지 못해 너무 아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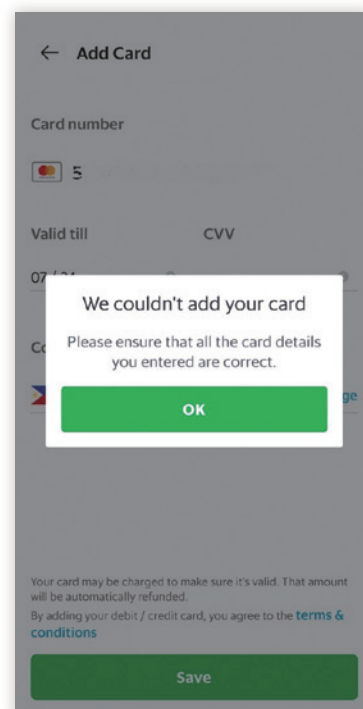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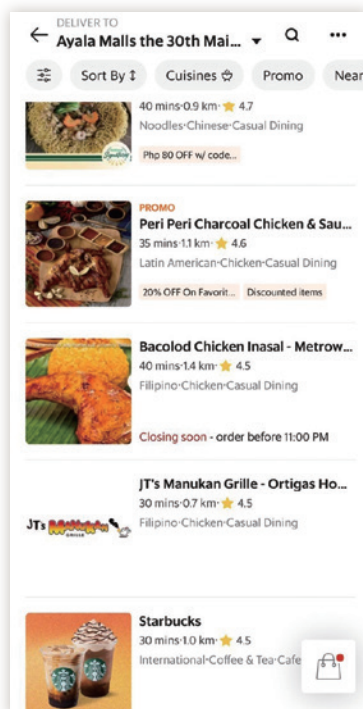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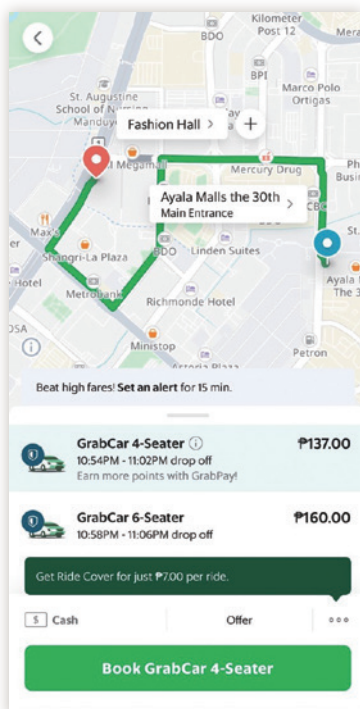
그랩(GRAB)

동남아의 우버라 불리는 차량 공유 서비스이다. 택시 대신에 그랩을 쓰는 데에는 여러 장점이 있다. 일단 바가지요금에 대한 걱정이 없다. 길이 익숙하지 않은 여행지에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운전기사에게 마음먹고 길을 빙빙 돌아가면 제대로 항의도 못 하고 당하기 쉽다. 반면, 그랩은 현 위치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차량 배정 시 산출된 루트로 고정요

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만약 예상에 없던 교통체증이 발생하거나 그랩 기사가 길을 잘못 들어 먼 거리를 빙빙 돌아갈 때도 정상 루트와 요금은 똑같다. 차량이 배정되면 그랩 기사의 사진과 이름, 차량 번호판과 차종, 차 색깔, 지금까지의 누적된 고객평가까지 표시되고 운전기사와의 전화 연결까지 가능하니, 일반 택시에 비해 안전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랩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현장 결제하더라도 본인인증 수단으로 해외결제가 가능한 카드(마스터, 비자 등)를 등록해야 한다. 일부 신용카드는 등록요금이 나는 경우가 있기에, 필리핀으로 출국 전 국내에서 앱을 다운로드받아 여러 카드로 등록을 시도해 볼 것을 추천한다. 카드등록이 어려운 경우 차라리 페이스북을 연동한 본인인증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현금결제만 가능하므로 미리 패소를 준비해둬야 한다.

그랩은 차량공유 서비스 말고도 음식배달서비스라는 매우 좋은 서비스가 있다. 여러 투어를 진행하다 보면 뻑뻑한 일정으로 밤늦게 숙소로 도착하는 경우가 있다. 투어 후 숙소에서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다 보면 나와서 다시 식당으로 이동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그랩을 이용하면 유명한 맛집의 음식들을 머무는 호텔이나 숙소에서 먹을



수 있다. 이용방법 또한 우리나라의 배달 앱과 사용방법이 비슷해서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고 배달요금 또한 저렴한 편이다.

아알라몰

여행을 하면서 그 나라의 특색있는 것들을 보는 쇼핑의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다. 세부시티에는 다양한 복합쇼핑몰이 있지만, 그중에 꼭 한 군데만 방문해야 한다면 아알라몰을 추천한다. 아알라몰은 기념품이나 식료품 쇼핑이 가능하고 다양한 맛집들이 모여있어서 많은 것들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외에도 환전이나 유심칩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어렵지 않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환전할 때는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그날, 또는 며칠 전 환전율을 참고해서 아알라 몰 같은 대형 쇼핑몰에서 환전하면 부담이 없고 안전하다. 하지만, 시간이 된다면 호텔 주변 환전소를 검색해서 가격을 비교해 보면 더 좋은 환전율로 환전할 수도 있다.

여행을 마치며

돌아가는 한국행 비행기는 반 정도의 좌석이 비어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승객들로 꽉 차 있었을 텐데, 아직은 코로나 19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팬데믹 이후로는 백신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One Health PASS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진 것과 도무지 코로나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탓에 아직은 다들 해외여행을 기피하는 것 같다. 우리는 한국 도착 후, 24시간 이내 의무 PCR 검사를 받는 것으로 여행을 마쳤다.

(10월 1일 이후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코로나 19 PCR 검사를 받아야 했던 제도가 없어지면서 앞으로 해외여행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이후 우리 일상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필리핀도 예외는 아니었다. 유명한 식당들 몇몇 곳은 문을 닫았거나 공사 중이었고 유명관광지 투어를 우리 부부만 진행하는 등 여행 인프라가 아직은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필리핀은 작년 12월 태풍 '라이'로 건물이 무너지고 전기공급이 끊기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실제로 여행 중 막탄 이곳저곳에는 폐건물, 폐차 등 태풍이 휩쓸고 간 흔적들이 곳곳에 복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래도 여행 중 만난 필리핀 사람들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생각나, 다시 세부에 또 가고 싶다. 길거리를 지나갈 때 몇몇 한국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인사해주는 일, 의사소통 때 어설픈 영어를 구사함에도 친절히 대해준 일, 자기 일처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현지 가이드들, 이런 일들로 필리핀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상승했다. 사람과 세부의 아름다운 풍경은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회복시켜 주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많은 사람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해외를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